다산포럼

종두술과 정약용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퇴치한 질병은 두창, 즉 천연두 뿐이다. 두창은 지난 1977년 10월, 소말리아에서 환자가 발생한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난 1980년 5월, 두창이 완전히 퇴치되었다고 선포했다.

국내에서 두창이 사라진 것은 1960년대 초다. 1961년에 마지막 환자가 보고된 이래 더 이상 두창 발생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그 전에 두창은 크나큰 피해를 주곤 했다.

해방 이후만 해도 1946년·1949년·1951년에 크게 유행했는데, 특히 6·25 전쟁 중이었던 1951년 피해가 가장 컸다. 환자가 4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만1000여명에 달해 치사율은 27%에 달했다. 60년 전만 하더라도 두창에 걸리면 4분의 1가량이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이었다.

동서를 막론하고 두창은 오랜 동안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 후기인 17~19세기에도 수시로 창궐하는 무서운 역병(전염병)이란 기록이 있다.

치사율은 30~40%에 달했고, 살아남더라도 마비 증상 등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두창하면 생각나는 '곰보'는 후유증 중에서는 오히려 가벼운 편이었다.

인류가 두창을 퇴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두술'이라는 예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두창의 원인이 바이러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세기 초였다. 하지만, 예방법은 그보다 훨씬 앞서 등장했었다.

두창 예방법으로 우두술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 외에 '인두술'도 있다. 우두술(牛痘術)은 소의 두창(cowpox)을 접종하는 것이고, 인두술(人痘術)은 사람의 두창(인두)을 접종하는 방법이다.

우두술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비교적 역사가 짧은데 반해, 인두술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인도와 중국에서부터 사용됐었다. 누가, 언제 인두술을 개발했는지 확실치 않다.

인두술이 터키를 통해 영국과 그밖의 유럽 나라들로 전해진 것은 1720년대다. 초기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인두술은 종종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

인두술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언제였을까? 정약용의 '종두설(種痘說)'에 따르면 1790년대 말께로 여겨진다.

'종두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강희자전'에는 '신통한 종두법에서는 무릇 두즙(痘汁)을 코에 넣어 호흡하면 나간다'라고 돼있는데…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정약용이 '강희자전'을 통해 인두술(종두법)의 존재를 알게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정약용은 중국에서 간행된 '정씨 종두방(鄭氏種痘方)'을 1799년에 구했으나 몇 장에 지나지 않고 내용이 간략해 궁금증을 다 풀 수 없었다.

이듬해 정약용은 박제가에게 중국 의서 '의종금감(醫宗金鑑)' 중 '종두요지'를 얻게 되고 두 책을 종합해서 '종두방(種痘方)'을 펴냈으나 탄압을 받는 시기에 분실하고 만다.

정약용의 대표적인 의학서 '마과회통(麻科會通)'속 '종두요지'가 이 종두방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분실했던 것을 찾았거나 다시 서술한 것일 터이다. 요컨대 정약용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두술에 관해 최초로 저술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했으며, 그의 저술은 이종인의 '시종통편(時種通編)'으로 발전한다.

정약용은 인두술뿐만 아니라 우두술도 최초로 소개한 인물이다. 1828년 중국에서 간행된 토마스 스탠튼(Thomas Stanton)의 한역(漢譯) 우두 지침서 '신증종두기법상실(新證種痘奇法詳悉)'을 자신의 '마과회통' 부록에 수록한 것이다.

정약용은 '마과회통' 서문에서 사대부로서 정치 일선에 나가 백성을 살리는 것과 의술로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한 가지임을 설파했다. 두창 퇴치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색한 데에서도 정약용의 정신과 활동이 잘 드러난다.

한편 참고 사항이긴 하지만 두창에 이어 머지않아 소아마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동옥의 S 스토리

아이의 궁금증 (2)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우리 아이가 요즘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장에 다녀와서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수영하는 거 정말 재미있는데 생리하면 며칠씩 수영장 못 가잖아. 나 그냥 탐폰(Tampon)하면 안 돼?"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처녀막 걱정이 되더군요. "글쎄, 그거 사용하면 처녀막이 파열될 수도 있는데"라고 말을 흘렸죠.

그 말을 하니 딸이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 도대체 그딴 게 왜 그렇게 중요해? 여자한테 처녀막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누군지도 모르는 미래의 남자를 위해 내가 처녀막을 간직해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봐. 나에게 처녀막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파열해 버릴 거야" 휴!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중학생 딸을 둔 한 엄마의 고민이다.

아이의 이야기만 보자면 혹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일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스스로 처녀막을 파열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다. 부모가 자기 생각이나 가치를 어떻게 받아주는지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말일 테다. 이럴 때에는 아이를 윽박지르지 말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아이의 속내는 이랬다. 성교육 시간에 처녀막에 관해 배웠고, 선생님이 여자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하며 그 순결의 증거로 첫날밤에 처녀막이 파열되어 혈흔이 보인다고 했다. 아이는 왜 여자에게만 순결을 강조하는지 억울했고 처녀막이 별다른 생리적 기능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처녀인지 아닌지의 증거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다 한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처녀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처녀막은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스스로 파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도 했다.

처녀막은 질 하단부에 위치하여 질 입구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주름 또는 막 모양의 섬유조직으로 여성 생식기의 외음부와 내음부의 경계가 되는 질막이다. 처녀막 자체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생식기를 보호하는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

처녀막의 영문 명칭인 하이멘(hymen)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결혼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결혼 전까지 처녀막을 잘 지키고 있다가 첫날밤에 남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보여주듯, 과거에는 처녀막을 처녀의 상징이나 정조의 징표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처녀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 처녀막은 사람마다 생김새와 두께가 다르다. 드물지만 처녀막이 질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어서 월경혈이 나오지 못해 수술로 처녀막을 절개하는 경우가 있다.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녀막이 변형되거나 파열될 수 있다. 성행위를 자주 했는데도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출산 때 비로소 처녀막이 파열되는 사람도 있다. 처녀막의 존재를 순결의 절대적 법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성관계는 남녀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지만, 동·서양을 불문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유독 여성의 처녀성에 큰 가치를 부여했고 정조검사를 통해 처녀성을 확인하려 했다. 동양 문화권의 경우 첫 날밤 흰 천에 묻은 혈흔을 통해 아내가 처녀인지 확인하려 했다. 그래서 결혼 전 성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물고기 방광을 질 속에 집어넣어 그 방광이 터지면서 피가 흐르게 하거나 깨진 유리를 얇게 빻아서 질 내에 넣어 피가 흐르게 하여 성 경험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혼전 순결에 대해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금까지 '처녀막 재생수술'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이중적인 성 가치관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관계는 상대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행위도, 자신의 순결을 상대에게 바치는 행위도, 그리고 순결을 결혼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도 아니다. 물론 순결이 남녀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서로를 향한 몸과 마음의 나눔이 처녀막의 혈흔을 확인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처녀막은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교육해야 한다.

기고

세 살 입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던 둘째 아이가 밤 11시가 넘어서 살며시 현관문을 열고 나가 과자 한 봉지와 콜라 한 캔을 사 들고 들어왔다.

과자 봉지를 살펴보니 주원료인 옥수수는 수입산을 사용했고, 백설탕, 정제소금, 산도조절제 등이 첨가돼 1일 권장소비량의 4분의 1이 넘는 510㎎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 모르는 아줌마가 해주는 음식을,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얄미울 때가 있지만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한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다.

수입농산물이 주원료인 인스턴트식품, 열량이 높거나 영양가가 낮은 식품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이 주변에 널려있다.

아이들이 아무리 영특하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인스턴트식품의 홍수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극적인 인스턴트식품의 유혹을 뿌리치기를 바라는 것은 엄마들의 지나친 기대일 뿐이다.

얼마 전 현역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자 수를 조사해 봤더니 30%가 넘는 군인들이 정자 수가 부족하거나 활동성이 없는 정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정자 수의 부족은 대부분 후천적인 생활습관과 식생활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식생활 패턴이 정자 수 감소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10세 이하 어린이가 최근 5년간 고콜레스트롤증, 당뇨 등으로 진료 받은 것이 10만 건이 넘고 진료비도 114억2000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것도 계속 증가추세라 머지않아 어린이들의 성인병 발생률이 미국보다 높을 것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빵이나 과자를 비롯한 탄수화물의 과잉섭취와 당분이 절반 이상인 탄산음료, 돈가스, 햄버거, 치킨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대부분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다.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 과도한 열량을 섭취하고도 TV 시청,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린이 성인병의 발병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탓이다.

식생활의 문제점을 인식한 전남도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담 관리원이 월 2회 이상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들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제때에 밥을 먹도록 하고, 간식은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만을 먹도록 하는 것이다.

세 살 입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정크푸드를 먹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해 자연재해 대비하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안전장치 역할을 해 왔다.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세 차례의 태풍과 우박·냉해 등 국지성 피해가 잦았던 지난 2012년에는 4만6300여 농가에 491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지난해에는 9만5102호의 농가가 가입해 전년대비 가입농가 수가 26.8%, 보험가입금액은 30.6%가 증가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오는 14일까지 사과, 배, 감귤, 떫은 감, 단감 등 과수 5개 품목을 비롯 4월 벼·대추·밤·수박·딸기 등 9개 품목, 5월에 콩·고구마·옥수수 6월에 참다래 등으로, 재배 시기에 맞춰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지·파·배추 등 작물 3종이 새롭게 추가돼 보장품목이 43개까지 확대됐다. 또, 보험 가입시 생산량 기준이 가입자 상황에 따라 표준수확량의 최대 150%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보장기간도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가 절반을, 지자체도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율이 보험료의 25% 정도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농가의 부담은 매우 적다 하겠다. 자동차를 사면 보험에 가입하듯,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농업에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장일주·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社說

무소속 후보 난립양상, 불·탈법 우려 크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참여하는 '통합신당'이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 대 무소속 후보군(群) 간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내지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선거에 나서려 했던 후보들이 탈당하거나 입당하지 않고 출마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도 변화에 따라 야권의 격전지인 광주·전남은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열에 따른 불·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는 과거 민주당처럼 예선이 곧 본선으로 이어져 유권자들이 사실상 선택의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도 무소속끼리의 대결로 요동을 치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통합신당'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 집행부 견제라는 대의는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통합신당으로 양측의 극한 대결을 피하기는 했으나 무소속 난립으로 그만큼 과열·혼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독주시대였던 1~5대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얼룩져 혹독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 곡성군수 예비후보들이 단일후보를 선출했고, 새정치연합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들도 단일화에 합의하는 등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선거에선 경합이 치열할수록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과열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인물 중심의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꾼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의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 지방선거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잘못 뽑아놓고 재·보궐선거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

후보자들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명분이 새 정치라는 사실을 직시, 호남에서부터 '선거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게 곧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국립공원 지정 1년 무등산 '명품' 만들려면

호남의 진산(鎭山)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된 지 4일로 꼭 1년을 맞는다. 도립공원 40년 만에 국립으로 승격된 무등산은 이후 탐방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은 북한산이 715만 명, 한려해상 670만 명, 무등산은 397만 명으로 단숨에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설악산 336만 명, 지리산 280만 명보다 많은 숫자다. 무등산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 이후인 4월부터 12월까지만 집계한 것을 감안하면 연간 탐방객은 5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무등산 두 곳에 개설된 이후 본격적인 자연자원 조사가 실시되면서 생태계의 보고인 점도 재확인됐다. 야생 동·식물만 2296종에 이르고 멸종위기종 13종을 비롯, 천연기념물, 국내 미기록종, 한반도 고유종 등 다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 통합, 사유지 매입 등 대규모 현안사업에서부터 등산로 정비, 자연환경 보존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데다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탐방지원시설도 필요하다. 캠핑 열풍이 불고 있지만 무등산 일원에는 청소년들이나 가족이 함께 야영을 통해 자연친화적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때문에 시민들은 가까운 무등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산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무등산은 호남의 영산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관리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정치권 역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 국립공원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진가 박노해

지난 2004년, 쓰나미가 휩쓸고 간 뒤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 해변 울렐르 마을에서 25살 젊은이가 바닷물 속에 손가락만 한 바까오 나무를 심고 있다. 청년은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한 사진가에게 "이 여린 나무가 지진 해일을 막아줄 순 없겠지요. 하지만 자꾸만 절망하려는 제 마음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한다.

8년 후 그 곳을 다시 찾은 사진가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만다. 그 가느다란 나무가 파도 속에 자라나 숲을 이뤘고, 그 청년은 여전히 어린 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가는 오래 된 만년필과 낡은 라이카 M6 카메라를 들고 수년 째 '지상의 가장 멀고, 높고, 깊은 마을과 사람들 속을' 걷고 있다. 사용하는 렌즈도 35㎜ 하나이고, 흑백필름을 주로 사용한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그가 찾아간 마을들은 공식 지도에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잃어 버리곤 했다고 한다. 그 사진가의 이름은 박노해.

그는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시집 '노동의 새벽'(1984년 펴냄)으로 널리 알려진 노동자 출신 시인.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 전혀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얼굴 없는 시인'으로 불릴 정도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그다.

지난달 28일 들러 본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박노해 사진전시장.

'다른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출옥한 후 그가 14년간 유랑하며 찍은 7만여 컷의 사진 중에서 엄선한 120컷을 선보였다.

'파도 속에 심은 나무가 숲을 이루다' '노래하는 다리' '짜이가 끓는 시간'과 같이 그의 흑백사진 속 주인공들은 작고, 힘없고, 가난하지만 땅에 감사하고, 이방인에 차와 미소를 건네고, 이웃과 나눌 줄 안다.

'빛으로 쓴 시(詩)'라 할 수 있는 그의 사진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우리가 바쁜 '삶의 속도' 속에서 잃어버린 근원적인 모습들을 일깨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유랑은 결국 우리 삶의 지경(地境)을 넓힐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송기동 사회2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